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과 결혼의향의 매개효과*

기나휘**·유계숙***

초 록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에서 결혼의향의 매개효과를 탐색함으로써 한국의 낙태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 166명과 여자 대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대학생의 적대적 성차별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온정적 성차별은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결혼의향은 보통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낙태 허용도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남성이고 연령이 높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고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양가적 성차별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가 대학생의 결혼의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고 종교가 없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낙태에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적대적 성차별과 온정적 성차별 모두 낙태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성차별과 온정적 성차별 모두 그 수준이 낮을수록 낙태에 보다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녀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낙태 허용도 사이에서 결혼의향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양가적 성차별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고, 결혼의향이 높을수록 낙태 허용도가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낙태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를 살펴보고 향후 낙태법 개정 방향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양가적 성차별주의, 적대적 성차별, 온정적 성차별, 결혼의향,
낙태허용도, 낙태법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19) 축약본임.

** 제 1저자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가족학 석사(tjsgy12@khu.ac.kr)

*** 교신저자 :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dongrazi@khu.ac.kr)

I. 서론

‘낙태’는 최근 한국 사회의 중심 이슈였다. 2017년 9월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이에 동의하였다. 지난 해, 1년간 이어진 여성시위의 주된 내용 중 하나도 낙태 합법화의 문제였으며, 이는 현재의 낙태 문제가 이전의 담론들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흐름에 따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2017년 청구된 낙태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현행 낙태법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에 있어 낙태를 하는 의사와 임부는 처벌하나, 남성은 제외되어있다. 시위에서는 불공정한 처벌 기준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낙태 합법화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요구했다. 또한 재판관들은 모자보건법 상의 이유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현행 낙태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구시대적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낙태가 점차 합법화 되어가는 시대적 흐름의 일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은 낙태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에 반대하여 시술거부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대립 사이에서 낙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갈등으로만 보여질 수 있으나, 실제로 고통 받는 피해자는 낙태의 딜레마에 서있는 당사자인 여성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낙태법의 구조에서 여성만이 처벌받고 남성은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성차별이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여성 시위가 1년 가까이 이어졌던 이유는 낙태 합법화만의 문제가 아닌 불법 촬영과 남녀 편파 수사 등 그 기저에 깔려 있던 성차별주의(sexism)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차별은 한국에 여성혐오의 문제가 대두된 이후,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이슈이다. 특히 현재 보여 지는 성차별은 과거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한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안상수 외, 2007). 따라서 향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보다 은밀하게 나타나는 성차별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Glick과 Fisk(1996)는 성차별은 단순히 적대감만이 아닌 상대에 대한 온정적 태도와 질시가 함께 혼합되어 있는 적대적 성차별(HS: Hostile

Sexism)과 온정적 성차별(BS: Benevolent Sexism)의 양가적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온정적 성차별(BS)은 좀 더 교묘한 형태의 성차별로, 지금의 은밀하게 드러나는 성차별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최근의 ‘낙태담론’은 젠더 논쟁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관련지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정원·안상수·김혜숙(2009)의 연구에 따르면, 적대적 성차별(HS)의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친화적 정책에 반대하고 온정적 성차별(BS)의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친화적 정책과 비친화적 정책에 모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흔히 정치적 진보나 보수에 따라 낙태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양가적 성차별 태도가 낙태 반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dson & MacInnis, 2017).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했을 때, 여성정책은 성차별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가적 성차별은 현재 논쟁되고 있는 낙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판결에 앞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조사’ 보고서(2018)에 따르면, 성경험이 있는 여성의 93.9%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79.7%는 임신 가능성에 따른 낙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여성이 성관계를 가지며 임신과 낙태를 항상 염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낙태를 고려하는 사유에 대한 1순위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29.1%)였으며 2순위는 ‘계속 학업이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20.2%)였다. 실제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의 98.2%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선택이었고 합법적 시술이 1.8%에 불과하였다는 결과는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행 낙태법의 효용성 문제를 상기시킨다. 실제로 현행 낙태 관련법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61.3%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77.3%가 현행 낙태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낙태법이 낙태의 주체인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 부정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람들이 낙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국내 실증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며, 이들이 실제로 낙태에 대해 얼마나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중요한 것은 낙태를 경험했던 여성 중 20대 이하였던 여성의 비율이 63.3%에 달했고, 미혼이었던 여성이 46.9%(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별·사별 2.2%)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즉 20대 미혼인 여성이 낙태를 경험하는 여성 중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낙태의 취약 집단으로 볼 수 있는

미혼 20대가 낙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2000년 이후 정부는 낙태 단속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엄격히 낙태를 금지시킨다면 출산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엄격한 낙태법은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지 못했다. 이는 낙태법이 출산에 별다른 작용을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출산은 곧 기혼자의 출산을 의미한다. 출산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써 결혼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오원옥, 2009; 이삼식, 20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즉 정부의 엄격한 낙태 단속보다 결혼이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에 긍정적일수록 출산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모성애적 태도(motherhood attitude)가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미향, 2011; Huang et al., 2014).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라, 개인의 결혼의향은 낙태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서 결혼의향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혼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결혼의향의 매개효과를 탐색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혼 남녀대학생의 낙태허용도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낙태법 개정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재 국내에서 일어나는 젠더 이슈를 풀어갈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결혼의향, 낙태허용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남녀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결혼의향, 낙태허용도의 간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남녀대학생의 결혼의향은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낙태허용도를 매개하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는 Glick과 Fiske(1996)가 고안한 개념으로 성차별을 하는데 있어 이성에 대한 적대감만이 아니라 애정과 질시가 함께 공존한다고 가정한다. Glick과 Fiske(1996)는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이 차별의 근거라고 가정했던 과거와 달리, 단순히 적대감만을 차별의 근거로 보는 것이 성차별을 이해하는 것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기존의 성차별보다 실제 현상을 적합하게 설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와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 2가지로 구성된다. 적대적 성차별(HS)은 여성이 남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매우 적대적으로 여기며 여성은 주도적 과업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반면 온정적 성차별(BS)은 여성을 보호와 애정의 대상으로 보며 남성을 보완하는 역할로써 대한다. 온정적 성차별(BS)이 표면적으로는 여성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여성을 위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온정적 성차별주의(BS) 역시 은밀히 여성을 차별하는 것으로 낮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고 기존의 남성 권력구조 유지에 기여하는 성차별의 일부이다(김재은·김지현, 2016; Glick & Fiske, 1996, 2001). 지금까지 온정적 성차별주의(BS)는 여성에 대한 보호, 우호적 태도, 친절로 포장되어 있어 문제로써 인지되지 않았으나, 개념이 등장한 이후 성차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기여할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Glick & Fiske, 2001).

Glick과 Fiske(1996)에 따르면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별(BS)은 가부장주의(Paternalism), 성역할 분화(Gender Differentiation), 이성애(Heterosexuality) 3가지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가부장주의와 성역할 분화, 이성애 모두 적대적과 온정적 경향을 함께 내재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가부장주의’는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다루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Glick & Fiske, 1996). 가부장주의는 다시 남성이 우월적인 위치에 있어 여성을 지배한다는 논리의 지배적 가부장주의(dominant paternalism)와 여성을 모성애에 기반하여 어머니, 아내, 사랑의 대상으로서 보는 보호적 가부장주의(protective paternalism)로 구분된다(Glick & Fiske, 1996, 2001).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배적 가부장주

의보다 보호적 가부장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보호적 가부장주의가 보다 당연시되며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파악된다(Lee et al., 2010). ‘성역할 분화’는 남성의 신체적 특징과 역할이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갖는 것에 더 적합하다는 논리이다(안상수·김혜숙·안영미, 2005; Glick & Fiske, 1996). 이는 경쟁적 성역할 분화(competitive gender differentiation)와 보완적 성역할 분화(complimentary gender differentiation)로 구분된다. 경쟁적 성역할 분화는 남성과 여성의 지위 차이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완적 성역할 분화는 여성이 남성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논리로 볼 수 있다. 보완적 성역할 분화는 여성을 고정적 성역할에 귀속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우양호, 2014). 마지막으로 ‘이성애’는 가장 강력한 양가적 감정의 근원이다. 이성애는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심리적으로 가장 밀접하고 친밀하게 느끼도록 한다. 이러한 이성애적 친밀함(heterosexuality intimacy)은 남녀관계를 낭만적으로 규정해 온정적 성차별주의(BS)의 근원이 될 수 있다(Glick & Fiske, 1996). 반면, 여성이 자신의 성적 매력을 통해 남성을 유혹한다는 논리의 적대적 이성애(heterosexuality hostility)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성차별과 교묘하게 행해지는 성차별을 함께 측정하여 현대의 성차별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낙태

모자보건법 상에서 낙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현재까지 낙태에 대한 논의는 ‘Pro-life’와 ‘Pro-choice’ 사이의 대립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현재 사람들이 낙태에 대해 얼마나 허용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Carlton, Nelson & Coleman, 2000; Misra & Hohman, 2000; Jelen, 2015)은 ‘Pro-life’와 ‘Pro-choice’ 중 하나의 선택을 위주로 이루어져왔고, ‘Pro-life’와 ‘Pro-choice’ 사이에서 어느 쪽을 보다 지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Pro-life’와 ‘Pro-choice’ 사이의 선택만으로는 낙태허용도를 검증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낙태허용도를 이주현과 유계숙(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생명의 존

엄성과 여성의 선택권 사이에서 낙태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지에 관한 태도”로 규정하였다.

주목할 점은 성역할 태도가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논의하기 전에 앞서, 이러한 성역할태도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온정적 성차별(BS)을 지지하는 여성은 전통적 성역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cker, 2010), Sibley와 Wilson(2004)는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을 훼손하려는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HS)은 높았으나 온정적 성차별(BS)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Huang과 동료들(2016)은 성별보다 성역할 태도가 낙태허용도를 보다 잘 예측한다고 주장했다. Jelen(201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역할 태도와 낙태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성 평등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낙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ng & Buffalo, 2004). Patel과 Johns(2009)의 연구에서도 평등한 성역할 태도가 여성의 낙태 자율성에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사람은 낙태에 허용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nin, 1985). 따라서 양가적 성차별은 독특한 방식으로 낙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Osborne과 Davies(2012)의 연구에 따르면, 양가적 성차별 수준이 높아질수록 선택적 낙태에 허용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uang과 동료들(2014)의 연구에 따르면, 적대적 성차별(HS)이 선택적 낙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외상적 낙태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gun과 Walls(2015)는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별(BS) 수준이 높아질수록 낙태에 반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결과가 어떠한 종류든 고정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성의 낙태권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Huang과 동료들(2016)의 연구에 따르면, 온정적 성차별(BS) 수준이 높아질수록 선택적 낙태와 외상적 낙태를 지지하지 않았으며, 모성애적 태도(motherhood attitude)가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선택적, 외상적 낙태에 대한 태도 사이의 완전매개변수임을 확인했다. 즉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 수준이 높을수록 모성애적 태도가 높아지며, 모성애적 태도 수준이 높아지면 선택적 낙태와 외상적 낙태를 지지하는 경향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낙태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는 연구마다 결과가 상반되고 부족한 실정이며,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국내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낙태허용도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한다.

3.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결혼의향

낙태는 곧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서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출산과 가장 관련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되는 변인은 ‘결혼의향’이다. 결혼의향이란 미래에 결혼을 할 것이라는 마음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출산의향은 결혼의향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삼식(2006)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필요성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미향(2011)의 연구에서도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낙태와 마찬가지로 결혼의향 또한 성역할태도와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김중백(2013)의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 성역할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은 결혼의향이 높으며, 서지희(2009)와 이삼식(2006)의 연구에서도 미혼 여성들이 전통적인 가부장적 태도를 거부할수록 결혼을 기피한다고 하였다. 최효미(2017)의 연구에서는 성 평등적 성역할 분담을 지지할수록 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할 확률이 낮아졌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현주·이동원·김모란(199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다 유동적인 성역할을 선호하는 대학생은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김경숙(2018)의 연구에서는 성역할이 결혼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혼 기대와 관련한 성역할이 사회화되는 것은 온정적 성차별주의(BS)와 관련이 있다(Glick & Fiske, 2001; Overall et al., 2011). 온정적 성차별(BS)은 사회의 성역할과 결혼기대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이끌어 낸다(Major et al., 2007). 결혼에 대한 기대는 낭만적 신념에서 비롯되는데 낭만적 신념은 온정적 성차별(BS)에 기인한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흠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Glick & Fiske, 2001). 이 때문에 여성은 온정적 성차별을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으며(Glick & Fiske, 1996), 혼전 관계에서 온정적 성차별(BS)을 지지하는 여성은 관계에 만족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Hammond & Overall, 2013). 그러나 온정적 성차별(BS)만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적대적 성차별(HS) 역시 관계에 작용을 하고 있다.(Overall et al., 2011.).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결혼의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종합해 보았을 때,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역할은 개인의 결혼관과 의식, 기대와 관련이 있어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개인이 지니는 결혼의향에 영향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결혼의향은 출산의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결혼 의향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2018년 7월~9월에 걸쳐 서울시 소재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대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을 실시하였다. 모든 응답자로부터 설문지 작성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기 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여 총 340부의 자료를 회수하였다. 이중 응답이 부실하여 결측이 있는 설문지 8부를 제외하고 332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녀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50.0%, 여자 50.0%로 고르게 분포하였고, 평균 연령은 22.72세였으며, 종교가 있는 이들은 32.3%, 없는 이들은 67.4%로 나타났다. 한편 성경험이 있는 이들은 59.9%, 없는 이들은 39.5%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가족 월평균 소득은 746.26만원으로 보고되었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32)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범위
성별	남자	50.0		
	여자	50.0		
연령(세)			22.72 (2.56)	18-28
종교	무	67.4		
	유	32.3		
성관계여부	무	39.5		
	유	59.9		
월평균소득 (만원)			746.26 (897.60)	80-10000

2. 측정도구

1) 양가적 성차별주의

본 연구는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안상수와 동료들(2007)이 Glick과 Fiske(1996)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현황에 맞게 개발한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K-MSI)를 사용하였다. 다면성별의식검사는 적대적 성차별(HS) 12문항과 온정적 성차별(BS) 12문항으로 구성된다.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별(BS)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응답범위를 가지며 총점은 각 12-48점이다. 적대적 성차별(HS)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을 통제하고자 하며 여성이 전통적 남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온정적 성차별(BS)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여성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적대적 성차별(HS)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 온정적 성차별(BS)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로 높게 나타났다.

2) 결혼의향

본 연구에서는 남녀대학생의 결혼의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혀 없음(1점)’부터 ‘전적으로 있음(4점)’까지의 Likert 척도를 제시하였다.

3) 낙태허용도

본 연구에서는 남녀대학생의 낙태허용도를 알아보기 위해 유계숙(2012)이 선행연구(보건복지부, 2005; 이주희, 2008; National Campaign to Prevent Teen and Unplanned Pregnancy, 2008)를 기초로 구성한 낙태허용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총점 범위는 16-64점이며,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1점)’부터 ‘전적으로 허용한다(4점)’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낙태허용도 수준이 높을수록 낙태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4로 높게 나타났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3.0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HS, BS)와 결혼의향, 낙태허용도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남녀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HS, BS), 결혼의향 및 낙태허용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HS, BS)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종교, 성관계여부, 월평균 소득을 통제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넷째, 양가적 성차별주의(HS, BS)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결혼의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련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확인을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검증 단계를 진행하고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결혼의향, 낙태허용도의 전반적 경향

남녀대학생들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결혼의향, 낙태허용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2>와 같다. 먼저 적대적 성차별(HS)은 평균 18.96점(SD=5.83)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온정적 성차별(BS)은 평균 23.92점(SD=7.14)으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혼의향은 평균 2.95점(SD=.95)으로 보통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낙태허용도는 평균 48.57점(SD=10.17)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2>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결혼의향, 낙태허용도의 전반적 경향
(N=332)

변인	평균(표준편차)	범위
적대적 성차별주의(HS)	18.96(5.83)	12-34
온정적 성차별주의(BS)	23.92(7.14)	12-43
결혼의향	2.95(.95)	1-4
낙태허용도	48.57(10.17)	16-64

2. 남녀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결혼의향 및 낙태허용도 간의 관련성

본 연구 대상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적대적 성차별(HS)을 살펴보면, 남성($r=.42, p<.001$)이고 연령이 높을수록($r=.33, p<.001$) 높게 나타났으며 성경험($r=.30, p<.001$)이 있고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r=.13, p<.01$) 적대적 성차별주의(HS)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온정적 성차별(BS)은 남성($r=.45, p<.001$)이며 연령이 높고($r=.28, p<.001$), 성경험($r=.22, p<.001$)이 있을 경우,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적대적 성차별주의(HS) 수준이 높을수록 온정적 성차별주의(BS)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향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14, p<.05$). 마지막으로 남자 대학생보다 여자 대학생이($r=-.13, p<.05$) 낙태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없고($r=-.16, p<.01$)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r=.15, p<.01$) 낙태에 더 허용적인 경향을 보였다.

<표 3> 남녀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결혼의향, 낙태허용도 간의 상관관계

($N=332$)

변인	1	2	3	4	5	6	7	8	9
1. 성별 ^{a)}									
2. 연령	.42***								
3. 종교 ^{b)}	-.09	-.10							
4. 성관계여부 ^{c)}	.38***	.44***	-.12*						
5. 월평균소득	.12*	.16**	.11	.07					
6. HS	.42***	.33***	-.02	.30***	.13*				
7. BS	.45***	.28***	.10	.22***	.11	.61***			
8. 결혼의향	.09	.09	.14*	.09	.07	.25***	.37***		
9. 낙태허용도	-.13*	-.03	-.16**	.15**	-.05	-.15**	-.21***	-.27***	

* $p<.05$, ** $p<.01$, *** $p<.001$

주: a) 성별 남성=1, 여성=0

b) 종교 유=1, 무=0

c) 성관계 여부 유=1, 무=0

3.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이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산팽창지수(VIF)는 2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성차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odel 1에서 주요 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연령, 종교, 성관계 여부, 가족의 월평균 소득을 투입한 결과, 9%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여자 대학생이고($\beta=-.23$, $p<.001$), 종교가 없으며($\beta=-.14$, $p<.05$),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낙태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1$, $p<.01$). Model 2에서 이들 변인을 통제한 후, 적대적 성차별(HS)을 투입한 결과, 전체 변량의 10%를 설명하여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F=5.18$, $p<.001$). 즉 여성이고 종교가 없으며, 성경험이 있고 적대적 성차별(HS) 수준이 낮은 대학생일수록 낙태에 허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beta=-.14$, $p<.05$).

다음으로 온정적 성차별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종교, 성관계 여부, 가족의 월평균 소득을 투입한 결과, 9%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여자 대학생이고($\beta=-.23$, $p<.01$), 종교가 없으며($\beta=-.14$, $p<.05$),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낙태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2$, $p<.01$). Model 2에서 이들 변인을 통제한 후, 온정적 성차별(BS)을 투입한 결과, 전체 변량의 11%를 설명하여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F=5.73$, $p<.001$). 즉 적대적 성차별(HS)과 같이, 여성이고 종교가 없으며, 성경험이 있고 온정적 성차별(BS) 수준이 낮은 대학생일수록 낙태에 허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beta=-.18$, $p<.01$).

<표 4>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이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N=332$)

변인	낙태허용도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상수)	51.48 (6.67)		53.11 (6.67)		51.86 (6.66)		54.41 (6.64)	

변인	낙태허용도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성별 ^{a)}	-4.76 (1.34)	-.23***	-3.91 (1.39)	-.19**	-4.61 (1.34)	-.23**	-3.20 (1.42)	-.16*
연령	-.10 (.31)	-.02	-.00 (.31)	-.00	-.13 (.31)	-.03	-.02 (.31)	-.01
종교 ^{b)}	-2.99 (1.26)	-.14*	-2.91 (1.25)	-.13*	-2.93 (1.26)	-.14*	-2.48 (1.25)	-.12*
성관계 여부 ^{c)}	4.42 (1.35)	.21**	4.81 (1.35)	.23***	4.59 (1.35)	.22**	4.81 (1.33)	.23***
월평균소득	.00 (.00)	-.02	-5.29 (.00)	-.01	.00 (.00)	-.01	-8.22 (.00)	-.01
HS			-.25(.12)	-.14*				
BS							-.25(.09)	-.18**
R ²	.09		.10		.09		.11	
F	5.25***		5.18***		5.25***		5.73***	

*p<.05, **p<.01, ***p<.001

VIF=1.03-1.44

주: a) 성별 남성=1, 여성=0

b) 종교 유=1, 무=0

c) 성관계 유무 유=1, 무=0

4.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에서 결혼의향의 매개효과

적대적 양가적 성차별이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에서 결혼의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 적대적 성차별(HS)은 매개변수인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25$, $p<.001$), 2단계에서 낙태허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beta=-.12$, $p<.001$). 즉 적대적 성차별(HS) 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결혼의향이 높고, 낙태허용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적대적 성차별(HS)과 결혼의향을 투입한 결과, 적대적 성차별(HS)은 낙태허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개변수인 결혼의향은 낙태허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20$, $p<.001$) 결혼의향이 적대적 성차별(HS)과 낙태허용도 사이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Sobel test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Z=-3.63, p<.001$). 즉 적대적 성차별(HS) 수준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결혼의향이 높고, 이처럼 높은 결혼의향을 매개로 낙태에 대한 비허용적 태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단계에서 온정적 성차별(BS)은 매개변수인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41, p<.001$), 2단계에서 낙태허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beta=-.18, p<.001$). 즉 온정적 성차별(BS) 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결혼의향이 높고, 낙태허용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온정적 성차별(BS)과 결혼의향을 투입한 결과, 온정적 성차별(BS)은 낙태허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개변수인 결혼의향은 낙태허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17, p<.001$) 결혼의향이 온정적 성차별(BS)과 낙태허용도 사이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Sobel test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Z=-3.02, p<.01$). 온정적 성차별(BS) 역시 수준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결혼의향이 높고, 이처럼 높은 결혼의향을 매개로 낙태에 대한 비허용적 태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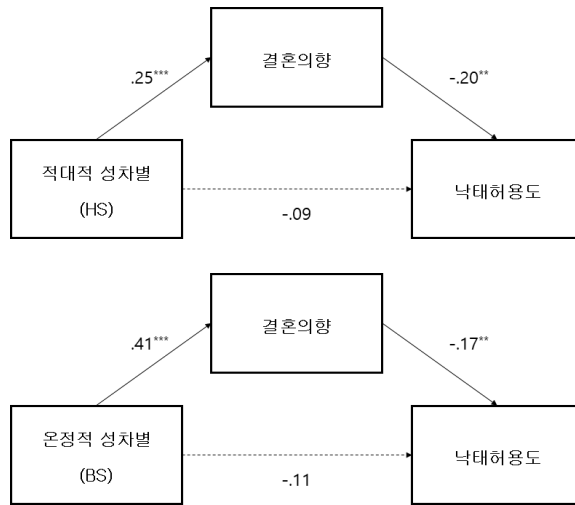
〈표 5〉 적대적 성차별(HS)이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에서 결혼의향의 매개효과

($N=332$)

단계	경로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β)	다중 상관지수 (R^2)	F
1	적대적 성차별(HS) → 결혼의향	.04	.25***	.09	4.84***
2	적대적 성차별(HS) → 낙태허용도	-.25	-.12*	.10	5.18***
3	적대적 성차별(HS) → 낙태허용도 결혼 의향 → 낙태허용도	-.16 -2.12	-.09 -.20**	.14	6.20***
단계	경로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β)	다중 상관지수 (R^2)	F
1	온정적 성차별주의(BS) → 결혼의향	.05	.41***	.17	9.69***
2	온정적 성차별주의(BS) → 낙태허용도	-.25	-.18**	.11	5.73***
3	온정적 성차별주의(BS) → 낙태허용도 결혼 의향 → 낙태허용도	-.15 -1.86	-.11 -.17**	.14	6.16***

* $p<.05$, ** $p<.01$, *** $p<.001$

주: 통제한 성별(1=남성, 0=여성), 연령, 종교여부(1=유, 0=무), 성관계여부(1=유, 0=무)는 표시하지 않음



[그림 1] 양가적 성차별이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에서 결혼의향의 매개효과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 167명과 여자 대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결혼의향, 낙태허용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결혼의향, 낙태허용도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였으며,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 사이에서 결혼 의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논의와 실질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결혼의향, 낙태허용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적대적 성차별(HS)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정적 성차별(BS)은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재은·김지현, 2016; 안상수 외, 2007)와 같이 적대적 성차별(HS) 수준이 온정적 성차별(BS)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과 일치한다. 한편, 결혼의향은 보통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낙태허용도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낙태에 대해 찬성하는 학생보다 반대하는 학생이 약간 많다는 이정환(2011)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나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

탄ان 전명희와 동료들(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전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낙태에 대한 태도는 점차 허용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낙태법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내려졌으나 2019년에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이러한 흐름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남녀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결혼의향, 낙태허용도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이고 연령이 높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고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별(BS)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양가적 성차별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김재은·김지현, 2016; 우양호, 2014; Glick & Fiske, 1996; Glick et al., 2000)와 일치한다. 이는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성차별적 편견이 더 짙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가적 성차별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어린 세대일수록 양가적 성차별 수준이 낮다는 선행연구(안상수·김혜숙·안영미, 2005; 안상수 외, 2007; Glick & Fiske, 1996)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어릴수록 성 편견적 태도가 형성되지 않고 이성과의 접촉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안상수·김혜숙·안영미, 2005). 성경험 유무 또한 양가적 성차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 Lemus, Moya와 Glick(2010)은 이미 성 편견적 태도를 가진 청소년은 이성에게 자신의 성역할을 매력적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성차별을 바탕으로 한 태도가 이성에게는 성적 매력이나 배려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소득 역시 양가적 성차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의향은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가 당위적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혜민·전귀연, 2018)로 해석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이고 종교가 없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낙태허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낙태허용도가 더 높다는 결과는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이 낙태에 더 허용적이라는 연구결과(이정환, 2011; 전명희 외, 2014)와 흐름을 같이한다. 성경험이 있는 여성의 93.9%가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고 이들 중 79.7%가 낙태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를 고려해 보았을 때, 임신의 주체인 여성이 남성보다 더 민감한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남녀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

별(BS) 수준이 낮을수록 낙태에 더 허용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가적 성차별 모두 수준이 높아질수록 낙태에 반대하는 태도를 가진다고 나타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Begun & Walls, 2015; Huang et al., 2014; Osborne & Davies, 2012)과 일치한다. 고려해야 할 점은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별(BS) 모두 낙태에 허용적이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양상으로 발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전술한 바와 같이,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별(BS)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모성애는 젠더 역할에 이상적으로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온정적 성차별(BS)과는 달리, 적대적 성차별(HS)은 여성이 그들의 성(sexuality)을 이용하는 것을 매우 비난한다(Glick & Fiske, 1996). 또한 온정적 성차별(BS)은 어린 유아와 임신한 여성에 대한 호의적 평가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risler et al., 2013). 즉 낙태에 비허용적 태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적대적 성차별(HS)을 지닌 사람과 온정적 성차별(BS)을 지닌 사람이 가지는 낙태에 대한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온정적 성차별(BS)을 지닌 사람은 여성의 몸을 모성의 탄생지로써 낙태를 반대할 수 있는 반면, 적대적 성차별(HS)을 가진 사람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인지하며 낙태를 반대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더 분화되어있는 성차별 태도에 따라 낙태에 대한 태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넷째,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이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결혼의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결혼의향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별(BS) 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높은 결혼의향을 가지며, 이를 매개로 낙태허용도가 낮아지는 것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 청년층에서도 여전히 결혼과 출산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별(BS)이 높으면 모성애적 태도가 높아지고 이를 완전 매개로 외상적 낙태와 선택적 낙태에 대해 낮은 허용도를 보였다는 연구(Huang et al., 2016)와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혼의향과 모성애적 태도를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힘들나 전통적 성역할과 관련이 있다는 점(Chrisler et al., 2013)은 동일하다. Huang과 동료들(2013)은 그들의 연구를 통해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특정한 성역할(i.e. motherhood)과 정책(i.e. abortion)의 기저에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결혼의향과 낙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낙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낙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낙태법 개정에

관한 과제가 주어졌다. 개정에 앞서 법 적용의 대상자들이 낙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년층은 낙태에 대해 어느 정도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태도만을 살펴보는 것은 개정 방안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서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 친화적 정책에는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영향을 미친다(이정원·안상수·김혜숙, 2009). 따라서 낙태법 개정의 방향성을 고려하는데 있어 국민들이 어떤 성차별적 태도를 지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에서 낙태가 젠더 논쟁을 불러왔다는 점은 이러한 필요성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청년층의 적대적 성차별(HS) 수준은 상당히 낮았으며 온정적 성차별(BS) 수준은 비교적 높았다. 이를 통해 요즘의 대학생들은 예전과 같이 여성을 임신수단으로써 판단하기보다 모성의 주체로써 여성을 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사료된다. 매우 우호적인 태도로 들릴 수 있으나, 온정적 성차별(BS) 역시 성차별의 일종으로 여성을 성적 불평등으로 이끄는 효과적인 도구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Dardenne, Dumont & Bollier 2007).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헌법불합치와 단순위헌을 결정한 재판관들은 낙태법에 '기간방식'의 도입을 제시했다. 단순위헌의견에서는 임신 14주(first trimester: 임신 제 1삼분기) 내에는 임신한 여성의 판단 아래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헌법불합치의견에서는 임신 22주 내외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낙태 허용 시기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임신 14주가 사회·경제적 낙태의 허용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성차별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몸이 보호 대상이라는 성차별적 편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낙태의 결정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신은 여성 혼자만의 결과가 아니며, 남성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존재한다. 처벌규정에서 남성이 제외되어 문제가 있었듯이 향후 개정사안에서도 남성이 제외될 경우 임신과 낙태의 책임에서 남성은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국 다시 여성 혼자 책임을 지게 만드는 구조를 낳을 수 있으며, 오히려 성차별적 편견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낙태에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되나 남성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을 위한 전문 상담과 같은 실질적 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피임과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 역시 강조되는 바이다. 유전적 문제와

산모의 건강이 위협되는 상황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는 오히려 여성의 몸에 해가 될 수 있으나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는 사전 피임으로 예방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하고자 한다면 피임을 철저히 하는 것이 여성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피임법을 중점으로 한 성교육 마련이 낙태법 개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결혼의향이 높을수록 낙태 허용도가 낮았다는 결과와 모성애적 태도가 높을수록 선택적 및 외상적 낙태에 낮은 허용도를 보였다는 결과(Huang et al., 2016)를 종합해 보았을 때, 낙태에 대한 태도는 가족계획과 연관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결혼의향의 완전매개효과는 미혼 대학생들에게도 결혼이 임신과 출산, 낙태에 있어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년층이 향후 결혼과 가족계획의 단계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대로 된 성교육을 통한 사전피임법의 습득이 필수적이므로, 피임과 성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유목적적 편의표집을 실시하였고 대학생은 결혼의향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게 정립되는 시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다양한 나이대의 표집을 통해 청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녀 차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어떠한 성차별을 바탕으로 낙태에 허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결과를 살펴볼 것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유형과 수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나아가 그것이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낙태에 대해 허용도라는 단편적인 결과만을 도출하였으나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어떤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지를 알아볼 것이 요구된다. 특히 향후 모자보건법에 사회·경제적 사유가 포함된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낙태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낙태허용도를 실증적으로 탐구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현재 낙태법의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낙태에 대한 젠더 논쟁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이 계속될 경우, 낙태문제는 본질을 잃고 젠

더 문제로만 이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낙태법이 온전히 법적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논쟁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차별주의(sexism)를 바탕으로 낙태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 성차별의 유형에 따라 낙태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낙태법 개정 방향의 단초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를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경숙(2018). 예비 결혼세대인 미혼 남녀의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결혼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 13(2), 289-299.
- 김재은·김지현(2016).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한국상담학회*, 17(1), 187-205.
- 김중백(2013).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차이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연구. *사회과학연구*, 39(1), 1-24.
- 김현주·이동원·김모란(1995). 남녀 대학생의 성역할 모델과 취업 및 결혼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66(1-3), 191-212.
- 도미향(2011).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미래결혼과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4), 163-178.
- 박혜민·전귀연(2018). 미혼남녀의 정서적·당위적·기능적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4), 53-80.
- 보건복지부(2005).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 서지희(2009). 미혼 취업 여성의 성 역할 태도와 생활 양식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 동거 여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안상수·김혜숙·안영미(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19(2), 39-66.
- 안상수·백영주·김인순·김혜숙·김진실(2007).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 2-204.
- 오원옥(2009). 대학생의 결혼의식, 원가족 건강성 및 성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5(2), 232-240.
- 우양호(2014).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양가적 성차별 이론(ambivalent sexism theory)”의 규명.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52(1), 271-301.
- 유계숙(2012). 낙태허용 사유에 대한 여학생의 인식이 낙태예방정책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3), 1-11.
-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6(2), 95-140.
- 이정원·안상수·김혜숙(2009).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관련 정책 및 강간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8-209.

- 이정환(2011). 낙태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한국사회과학연구*, 33(1), 193-203.
 - 이주희(2008). 낙태관계규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청주법학*, 30(2), 143-168.
 - 전명희·신계영·최경숙·이선애·홍선우(2014). 간호대생의 결혼, 임신 및 낙태에 대한 태도. *한국간호교육학회*, 20(2), 312-320.
 - 최효미(2017). 청년 미혼층의 결혼 및 출산 의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49-55.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낙태행위의 사회경제적 사유 분석과 관련 정책 개선 방안.
 - _____ (2010).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 _____ (2018).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조사.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ecker, J. C. (2010). Why do women endorse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The role of salient female subtypes and internalization of sexist contents. *Sex Role*, 62, 453-467.
- Begun, S., & Walls, N. E. (2015). Pedestal or gutter: Exploring ambivalent sexism's relationship with abortion attitudes. *Affilia*, 30(2), 200-215.
- Benin, M. H. (1985). Determinants of opposition to abortion: An analysis of the hard and soft scales. *Sociological Perspectives*, 28(2), 199-216.
- Carlton, C., Nelson, E., & Coleman, P. (2000).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abortion and commitment to the issue. *The Social Science Journal*, 37, 619-625.
- Chrisler, J. C., Gorman, J. A., Marvain, M. L., & Johnstone-Robledo, I. (2013). Ambivalent sexism and attitudes toward women in different stages of reproductive life: A semantic, cross-cultural approach.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35, 634-657
- Dardenne, B., Dumont, M., & Bollier, T. (2007). Insidious dangers of benevolent sexism: Consequences for women's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5), 764-779.

- De Lemus, S., Moya, M., & Glick, P. (2010). When contact correlates with prejudice: Adolescents' romantic relationship experience predicts greater benevolent sexism in boys and hostile sexism in girls. *Sex Roles*, 63, 214-225.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91-512.
- Glick, P., & Fiske, S. T. (2001). An ambivalent alliance: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s complementary justifications for gender inequity. *American Psychologist*, 56(2), 109-118.
- Glick, P. et al (eds). (2000). Beyond prejudice as simple antipathy: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cross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63-775.
- Hammond, M. D., & Overall, N. C. (2013). Men's hostile sexism and biased perceptions of intimate partners: Fostering dissatisfaction and negative behavior in close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12), 1585-1599.
- Hodson, G., & MacInnis, C. C. (2017). Can left-right differences in abortion support be explained by sex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4, 118-121.
- Huang, Y., Davies, P. G., Sibley, C. G., & Osborne, D. (2014). The precious vessel: Ambivalent sexism and opposition to elective and traumatic abortion. *Sex Roles*, 71(11), 436-449.
- Huang, Y., Davies, P. G., Sibley, C. G., & Osborne, D. (2016). Benevolent sexism, attitudes toward motherhood, and reproductive rights: A multi-study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bortion attitud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2(7), 970-984.
- Jelen, T. G. (2015). Gender Role beliefs and attitudes toward abortion: A cross-national exploration 1. *Journal of Research in Gender Studies*, 5(1), 11-22.
- Lee, T. L., Fiske, S. T., Glick, P., & Zhixia Chen. (2010). Ambivalent sexism in close relationships: (Hostile) Power and (Benevolent) romance shape relationship ideals. *Sex Roles*, 62(7-8), 583-601.

- Major, B., Kaiser, C. R., O'Brien, L. T., & McCoy, S. K. (2007). Perceived discrimination as worldview threat or worldview confirmation: Implications for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1068-1086.
- Misra, R., & Hohman, S. (2000). Trends in abortion attitude among young adults: 1977-1993. *American Journal of Health Studies*, 16(2), 85-98.
- National Capaign to Prevent Teen Pregnancy. (2007). *Magical thinking, Young adult's attitudes and beliefs about sex, contraception, and unplanned pregnancy, Results from a Public Opinion Survey*.
- Osborne, D., & Davies, G. P. (2012). When benevolence backfires: Benevolent sexists' opposition to elective and traumatic abor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2, 291-307.
- Overall, N. C., Sibley, C. G., Tan, R., & Simpson, J.(editor). (2011). The costs and benefits of sexism: Resistance to influence during relationship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2), 271-290.
- Patel, C. J., & Johns, L. (2009). Gender role attitudes and attitudes to abortion: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The Social Science Journal*, 46(3), 493-505.
- Sibley, C., & Wilson, M. (2004).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t attitudes toward positive and negative sexual female subtypes. *Sex Roles*, 51(11), 687-696.
- Wang, G. Z., & Buffalo, M. D. (2004). Social and cultural determinants of attitudes toward abortion: a test of Reiss' hypotheses. *The Social Science Journal*, 2004, 41(1), 93-105.

Abstract

The Effects of Ambivalent Sexism on Acceptance of Abortion Perceived by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Marriage Intention

Na Hwi, Ki*·Gye Sook, Yoo**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 basis for amending the abortion law in Korea by exploring the mediating effect of marriage intention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ambivalent sexism and acceptance of abortion. For this purpose, 166 male and 166 female college students attending a four-year university in Seoul were survey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university students had a moderately low level of hostile sexism and a slightly low level of benevolent sexism. Their level of marriage intention was above average and acceptance of abortion was slightly higher than average.

Secon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evel of ambivalent sexism was higher for male and older students and also for those who had sexual experience and whose monthly family income was higher. Moreover, religion was found to be related to university students' marriage intention, and greater acceptance of abortion was exhibited by female university students with sexual experience who have no religion.

Third, the results indicated that both hostile sexism and benevolent sexism affected acceptance of abortion. Namely, the lower the university students' hostile or benevolent sexism, the greater their acceptance of abortion.

Fourth, marriage intention was shown to have a fully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mbivalent sexism and acceptance of abortion among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at is, the higher the university students' level of hostile or benevolent sexism, the higher their

* First Author : Master, Dep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Dep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level of marriage intention and the higher their level of marriage intention, the lower their acceptance of abortion. Based on the aforementioned results, the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toward the currently much-debated issue of abortion were examined and ways to amend the abortion law in the future were proposed.

Keywords : Ambivalent Sexism, Hostile Sexism, Benevolent Sexism, Marriage Intention, Acceptance of Abortion, Abortion law